장성 누리타운, 실버복지 '새 지평' 열었다

주거·복지·보건 서비스 원스탑으로 지원
입주 어르신들 만족도 높아… 호평 일색

장성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장성군 제공

장성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이 준공 100일을 맞았다.

올해 3월 광주·전남권 최초로 장성군에 준공된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영구임대 형식으로 제공되는 복지주택이다. 임대료는 월 3~5만 원, 5~7만 원 선으로 법정최저 수준이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정책이나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다. 장성군은 누리타운 내에 사회복지관을 개관해 세대별 심층상담을 비롯한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를 맞춤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취미? 여가교실, 건강증진실, 찜질방, 경로식당(평일 중식) 등을 타운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바로 '옆 건물'인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 체크 서비스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와 복지, 보건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원 스탑(one-stop) 시스템을 갖춘 것은 누리타운만의 독보적인 장점이다.

어르신들 만족도 높아… 호평 일색 이밖에 누리타운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건강함을 더했다. 또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는 수압식 세면대 높이 조절장치와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그래서일까? 누리타운에 입주한 어르신들로부터 "삶의 질이 몰라보게 향상되었다"는 호평이 이어진다.

누리타운 입주민 김갑용(88세, 남)씨는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편해졌다"고 했다.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김씨는 복도마다 설치되어 있는 손잡이와 고령자의 안전을 고려한 실내 주거환경에 대해 큰 만족감을 드러냈다.

도전에 도전 거듭… '군 단위 최초', '150세대 확보' 결실 애초에 장성군은 공공실버주택 사업 대상이 아니었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던 중앙부처에서 최초 사업추진 당시, 신청자격을 일부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유두석 군수는 장성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어르신들의 주거 인프라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기초자치단체로까지 사업 신청 자격을 확대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줄기차게 건의했다. 그 결과 장성군은 군 단위 최초로 공공실버주택 사업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유 군수의 도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최초 공모 당시 80세대였던 사업량을 약 1.5배 가까이 늘려 150세대를 확보했던 것. 이 역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타 지역 사업에서 남은 '자투리 세대'들을 발 빠르게 끌어 모은 결과다.

조용하지만 큰 변화 지난 7월 1일, 민선7기 1주년 기념행사를 마친 유두석 장성군수가 바쁜 걸음으로 향한 곳은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1층 '경로식당'이었다.

유 군수가 민선7기 2년을 누리타운 배식봉사로 시작한 것에 의미가 없을 리 없다. 그는 "군정의 최종 목표는 군민의 행복이며, 장성군민의 행복은 지역 어르신의 행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만 해도 냉난방조차 여의치 않은 낡은 집에서 생활을 이어가던 어르신들이 지금은 최신 시설을 갖춘 읍내 복지주택에서 안락함을 누리고 있다. 누리타운이 몰고 온 '조용하지만 큰 변화'다.

유 군수는 "장성을 처음 찾으신 분들이 읍 시가지 한복판에 서있는 누리타운의 야경을 보고 '저기 탁 트인 도로 앞 고급 아파트'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신다"면서 "집안의 어르신께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장성군은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정윤섭 기자 jjs@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인 화순군청 배드민턴팀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청 배드민턴팀, 단체전·단식 우승

올림픽 제패 기념 선수권대회…혼합복식도 준우승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인 화순군청 배드민턴팀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팀(감독 정명희)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화순에서 한국실업대드민턴연맹 주최로 열린 '이용대 올림픽 제패 기념 2019 전국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이하 선수권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화순군청 배드민턴팀 전주이 선수가 단식에서 우승, 혼합복식 정나은·박경훈(국군체육부대)조 준우승, 유채란·김동주(국군체육부대)조가 3위에 올라 괄목할만한 성적을 냈다.

화순군청 배드민턴팀은 지난 7일 열린 단체전 결승전에서 전북은행을 3 대 1로 꺾고 승리했다.

11일에는 개인전 단식 결승전에 진출한 전주이 선수는 전북은행 이장미 선수를 상대로 완승(2 대 0)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정명희 감독과 김영주 코치의 체계적인 훈련과 열정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이번 우승을 계기로 하반기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남호경 기자 hknam@

영광,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통해 청년혁신창업 공간 조성

청년예술인 공동작업 공간 '빠끔살이 공작소' 개소

영광군과 '청소년자람터 오늘'은 최근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혁신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한 '빠끔살이 공작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과 '청소년자람터 오늘'은 최근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혁신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한 '빠끔살이 공작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빠끔살이 공작소'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진로탐색 도우미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예술인들이 재능기부를 해 책상, 선반 등 집기를 직접 제작하고 내부벽화 등으로 리모델링했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빈 점포가 목공예, 금속공예 등 교육 및 창작활동 공간이자 코워킹 스페이스로 탈바꿈된 것이다.

7월부터 목재·금속·커피 가공, 업사이클링 등 7개 기초교육과정이 진행되고 교육 수료 후 창업 팀을 구성하여 제품 제조과정, 선진지 견학 과정, 판매 과정 등 청년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교육을 진행한다.

'청소년자람터 오늘'이 추진하는 청년진로탐색 도우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니트족,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청년정책 홍보, 청년창업 링크쇼, 청년창업 사관학교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영광읍 구시가지 전 한길서림 자리인 이 공간을 비롯해 주변거리가 과거에는 번화가였지만 현재는 빈 점포가 늘어 공실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창업 공간인 '빠끔살이 공작소'가 들어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청년 일자리창출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진 기자 jin780617@

함평군수 대행 농림부 방문 '국비확보 총력'

나윤수 함평군수 권한대행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날 나 권한대행은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 이개호 장관을 만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건의사항은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5억 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159억 원 ▲손불 나산 하수관로 정비사업 73억 원 ▲함평읍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56억 원 ▲주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44억 원 ▲함평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 10억 원 등 모두 6개 사업 447억 원이다.

이날 나 권한대행은 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와 같은 농촌 소규모 지자체는 정말 어려운 요즘"이라며, "특히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 함평은 경제는 차치하더라도 생활정주환경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국비지원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도 "기획재정부 예산심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국회 심의 절차 또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만큼, 함평군이 건의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선에서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함평=박동주 기자 df3141@

대성그룹 대성에너지(주)
매월 4일은 가스안전 총점검의 날

새로운 에너지로의 패러다임 변화
대성그룹이 이끌어 갑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들고 땅속과 하늘에서 물을 만드는 기술
대성그룹이 새로운 에너지를 찾고 활용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 식량 문제 해결을 통해
대성그룹이 새로운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 갑니다.